

numbers 제 104호



주요 내용

2021.07.16

1. 이번 주 주제 : [대한민국 트렌드; 모바일 중고 거래 이용자 1,640만 명 돌파!]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올 여름 휴가 계획] 집콕 + 따로 휴가지에 갈 계획 없다' 55%
 - [2030의 세대 인식] '공정 세대'보다는 '상실 세대'에 가까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대한민국 트렌드

당근마켓은 당근을 파는 가게인가요?

당근마켓이라고 들어보셨는가? 당근을 파는 가게라고 대답하신다면 당신은 트렌드에 아주 둔감한 사람이다. ‘당근’은 ‘당신 근처’를 줄인 신조어(신조어에 대해서는 넘버스 99호 참조할 것)로서, 당근마켓은 개인이 자기가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중고 물품을 사고 파는 온라인 마켓이다.

우리는 남이 쓰던 중고 물품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었다. 중고 물품은 돈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사는 것, 겉만 번지르하고 내용 상태는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었다. 그런데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규모가 커져서 이제는 온라인 쇼핑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트렌드로서 중고 거래에 주목하고자 한다. 중고 거래는 역사가 길어서 새로운 트렌드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요즘의 중고 거래는 예전과 다른 속성을 갖고 있다. 요즘 중고 거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변화된 사회에 대한 가치가 내재되어 있고, 젊은 세대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그래서 새롭게 부활한 중고 거래는 예전의 중고 거래와 다른 새로운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104호에서는 새로운 트렌드로서의 중고 거래의 의미를 담았다. 이번 주제를 통해 시대의 변화 트렌드를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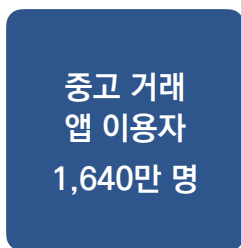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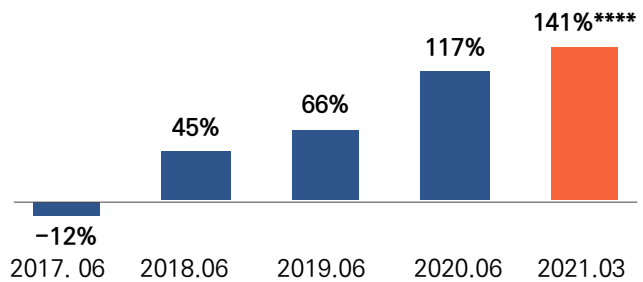
모바일 중고 거래 이용자 1,640만 명 돌파!

- 2021년 3월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중고 거래 앱 이용자는 1,640만 명을 넘어서서 중고 거래가 시장의 한 형태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 모바일 중고시장의 규모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합리적 소비 성향 추세가 지속되고 경제적 상황이 힘들수록 중고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당근마켓 이용자가 1,518만 명으로 전체 중고 거래 앱 중에서 9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모바일 중고 거래 이용자 규모



[그림] 모바일 중고 거래 시장 성장률(연도별)



*자료 출처 : 플랫폼, 2021.04.26, '중고거래' 업종 뚜렷한 성장세...당근마켓 점유율 93%, <https://platum.kr/archives/161766>

**자료 출처 : 코리아 클릭, 2020. 7. 23. '뉴스레터:모바일 중고 거래 이용자 1000만시대'

http://www.koreanclick.com/insights/newsletter_view.html?page=1&code=topic&id=583

***중고 거래 앱 이용자 합산이므로 중복 이용자가 있음

****2021년 3월 수치는 2020.01~2021.03까지의 성장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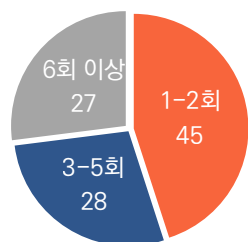
2



중고 거래, 호기심을 넘어 일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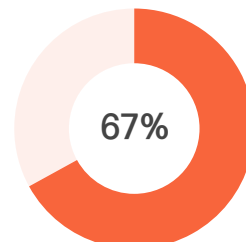
- 2030세대의 중고 거래 횟수로는 지난 1년 간 1~2회가 45%로 가장 많았고 6회 이상은 4명 가운데 1명 이상인 27%였다. '1~2회'는 호기심으로 시도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는데, '6회 이상'은 중고 거래를 일상적 거래 행위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 중고 거래가 일상이 된 것은 중고 거래로부터 얻는 이익 뿐만 아니라 중고 물품에 대한 거부감이 떨어진 것도 한 몫했다. '중고 거래에 대한 거부감이 예전보다 덜 한 것 같다'에 67%가 동의할 정도로 중고 거래를 쇼핑의 한 형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림] 2030세대의 지난 1년간 중고 거래 횟수 (%)



*자료 출처 : 굿리치, '청춘재테크 보고서 지출관리편'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3/215653/>, 2020. 3. 2(전국 2030세대 1,000명)

[그림] 중고 거래에 대한 거부감이 예전보다 덜 한 것 같다 : 동의율



*자료 출처 : 트렌드 모니터, '2020 중고 거래 및 중고 거래 플랫폼 관련 인식 조사' 2020. 11. 25(전국 만19~59세 남녀, 온라인조사, 2020. 11.11~11.16)

**5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임

● 중고 거래는 ‘합리적 소비’ 활동!

- 중고 거래가 왜 활성화되었을까? ‘합리적 소비’ 활동이기 때문이다. 중고물품을 구매하는 이유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서’(65%)를 압도적으로 응답했고, ‘중고로 구매하는 것도 나름 합리적 소비라는 생각이 들어서’(49%)도 중요한 이유로 응답했다.
- 요즘 소비자들은 물품을 고장이 나거나 닳아서 해질 때까지 간직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사용하던 제품의 유행이 지났거나 신제품이 나와서 기존 제품에 싫증이 난 경우에 물건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 중고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사용하기에 손색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중고물품을 사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자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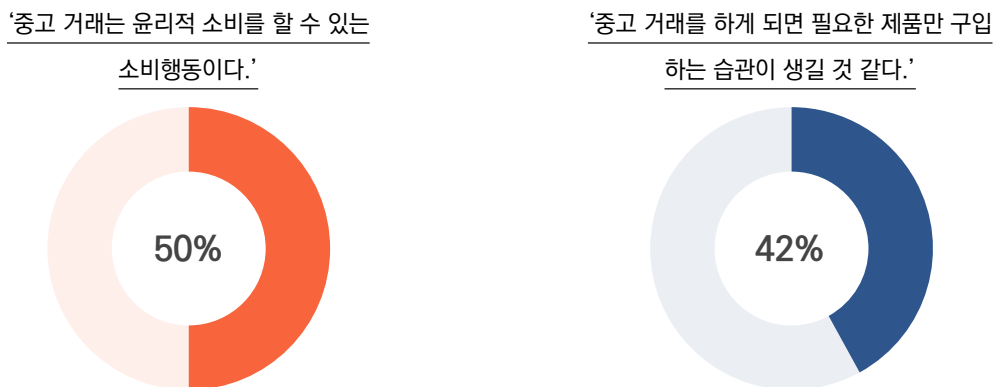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2020 중고 거래 및 중고 거래 플랫폼 관련 인식조사' 2020. 11. 25(전국 만19-59세 남녀, 온라인조사, 2020. 11.11~11.16)

● 중고 거래는 ‘착한 소비’ 활동

- ‘중고 거래는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 행동’(50%)이라는 응답과 ‘중고 거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품만 구입하는 습관이 생길 것 같다’(42%)는 응답을 보면, 소비자들은 중고 거래가 자원을 재활용하고 과소비를 방지하는 사회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 소비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인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환경을 보전하거나 생산자를 보호하는 효과까지 염두에 둔 소비 행위를 ‘윤리적 소비’ 혹은 ‘착한 소비’라고 한다. 중고 거래에 대한 인식을 보면, 중고 거래를 착한 소비로 본다고 할 수 있다(착한 소비에 대해서는 넘버즈 32호 참고할 것).

[그림] 중고 거래에 대한 인식 : 동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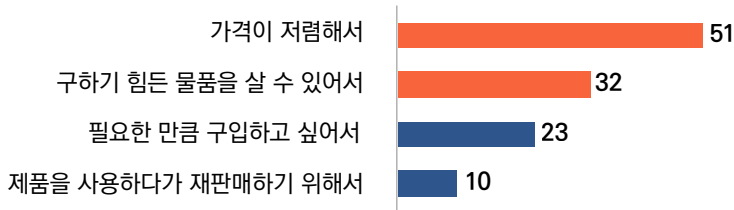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2020 중고 거래 및 중고 거래 플랫폼 관련 인식조사' 2020. 11. 25(전국 만19-59세 남녀, 온라인조사, 2020. 11.11~11.16)

**5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임

● 중고 거래는 ‘짜릿한 경험’

- 10대 청소년의 중고 거래 이유도 ‘가격이 저렴해서’(51%)가 가장 컸다. 10대는 용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고 거래가 훨씬 반가운 것이다.
- 그런데 ‘구하기 힘든 물품을 살 수 있어서’(32%)라는 응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젊은 세대에게 중고 거래는 단순히 남이 쓰던 물건을 싼 값에 사는 것만이 아니다. 평소 갖고 싶던 물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애만 태우다가 중고 시장에서 발견하여 싼 값으로 손에 넣을 때 느끼는 짜릿한 ‘경험’이 중고 거래를 하게 하는 중요 동기를 제공한다.

[그림] 10대의 중고 거래 선호 이유(중복응답) (%)



*자료 출처 : 엘리트학생복, '10대 청소년들의 중고 거래 현황' <https://blog.naver.com/myelite1318/222316629548>, 2021.4.19.
(초중고생 277명, 온라인조사, 2021. 3.26~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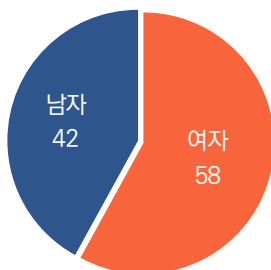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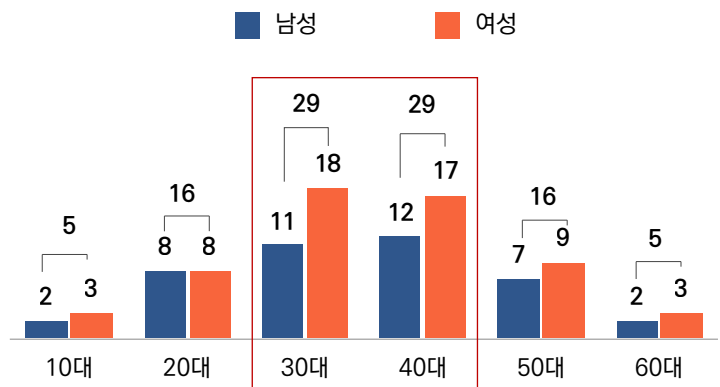
중고 거래 핵심 이용자, 3040 세대

- 중고 거래 앱 사용자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성별로 여자(58%)가 남자(42%)보다 많고, 연령별로는 3040 세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3040 여성층이 35%로 월등하게 많다.
- 거래할만한 물품의 보유 여부와 구매력을 감안할 때 실제 이용자는 3040세대가 가장 비중이 높았다.

[그림] 중고 거래 앱 사용자 구성 (성별, 2020년 3월 기준) (%)



[그림] 중고 거래 앱 사용자 구성(성/연령별, 2020년 3월 기준) (%)



*자료 출처 : 모바일 인덱스, '중고 거래 앱 시장 분석', 2020. 0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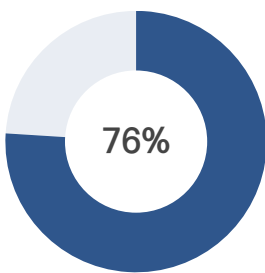


향후 중고 거래 시장, 지속적인 성장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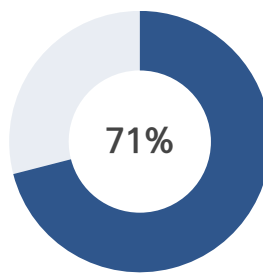
- 향후 국민들의 중고물품 구매 의향률은 무려 76%로 높고, 앞으로도 중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73%에 달하는 것을 보면, 국내 중고 거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중고 물품 시장 전망('그렇다'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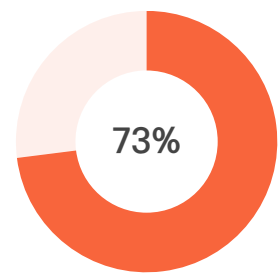
'나는 중고 물품 구매 의향이 있다' **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중고 거래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



'앞으로도 중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질 것 같다.' ****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2020 중고 거래 및 중고 거래 플랫폼 관련 인식조사' 2020. 11. 25(전국 만19~59세 남녀, 온라인조사, 2020. 11.11~11.16)

**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임

*** 5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임

**** '그렇다', '아니다'의 2점 척도 질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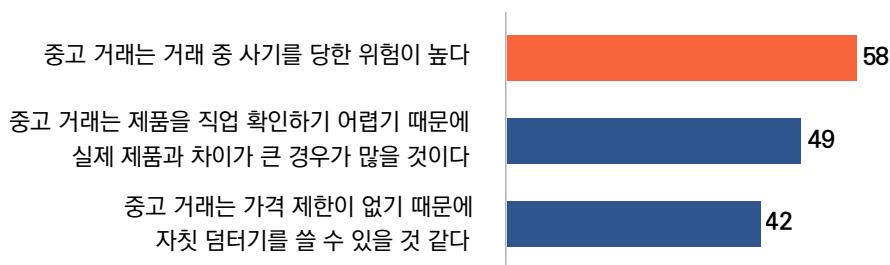
5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다' 58%

- 그런데 중고 거래는 거래 상대방을 믿을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다'(58%)는 우려가 많고, 제품을 보지 않고 구매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실제 제품과 차이가 큰 경우가 많을 것이다'(49%), '가격 덤터기를 쓸 수 있을 것 같다'(42%)는 우려도 상당하다.
- 중고 거래에 대한 불신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 있는 중고 거래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 주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그림] 중고 거래에 대한 부정적 인식 : 동의율** (%)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2020 중고 거래 및 중고 거래 플랫폼 관련 인식조사' 2020. 11. 25(전국 만19~59세 남녀, 온라인조사, 2020. 11.11~11.16)

** 5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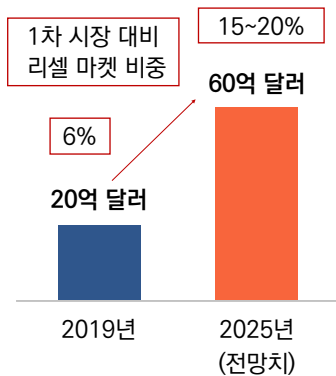
6



리셀(되팜), MZ세대에 새로운 재테크 수단!

- 중고 거래의 한 형태 중 리셀(resell, 명품 또는 한정판 제품을 구매 후 다시 되파는 행위)은 최근 MZ세대 라고 일컫는 젊은 층의 소비, 구매 패턴으로 급부상하며 새로운 재테크의 수단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2019년 세계 리셀 시장은 1차 시장(새로운 제품 판매 시장을 말함 ; Primary market) 대비 6%인 20억 달러를 차지했는데 2025년 그 비율이 15~20%로 상승해 60억 달러 규모로 전망된다.
- 리셀의 대표적 품목 중 하나가 운동화이다. 2020년 1월 기준 2016년에 발매한 나이키 운동화가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데, 가격이 무려 3,723만 원에 이를 정도다.

[그림] 세계 리셀 시장 전망* (%)



[그림] 가장 비싼 리셀 운동화(상위 3위, 2020년 1월 기준)**

순위	발매년도/브랜드	리셀 가격
1위	2016년/나이키 신발	3,723만 원
2위	2017년/아디다스 신발	2,884만 원
3위	2002년/나이키 신발	2,883만 원

*자료 출처 : 세계일보, 2021.04.10., '신발값만 있으면 돈 벌어요...스니커테크 시대',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08520180>

**자료 출처 : 이코노미조선, 2020.05.18., '중고 아닌 중고 상품' 거래하는 리셀(re-sell) 시장 21만원 운동화가 1300만원... '샤테크' 이어 '스니커테크'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0&t_num=13608918



시사점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서울 청계천에 헌책방이 즐비했었다. 여기에 가면 별별 책들이 다 있었다. 교과서도 사고 전집류도 사고 그랬는데 산 책들을 보면 밀줄도 그어져 있고 낙서도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책을 사는 것은 돈이 없어서였다. 모두가 어렵게 살던 시절에는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헌책방을 이용했다. 그러다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소득이 높아져 이제 굳이 남이 쓰던 책을 사서 보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된 후부터는 헌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헌책방을 이용하는 이유가 꼭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헌책방에는 지금은 절판되어 시중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책들도 있다. 중년들이 어릴 때 보았던 책들을 만났을 때의 기쁨과 추억, 교수 등 전문가가 연구에 필요한 책을 발견했을 때의 희열 등이 헌책방에서 느끼는 묘미라고 할 수 있다.

요즘 새로운 트렌드인 중고 거래도 좋은 물건을 싼 값에 산다는 행위, 즉 합리적 소비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중고 거래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 중고 거래의 가치 혹은 사회적 의미는 중고 거래가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환경 보호 심리가 깔려 있는 착한 소비 활동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다. 욕구가 육체적인 것이라면 욕망은 정신적인 것이다. 인간의 욕망이 인간 문명 발달에 기여한 바도 있지만 그 욕망이 인간을 망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들도 파고들어 가보면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폭염, 폭우, 폭설 등 이상 기후도 더 풍요롭자고, 더 편하자고 하는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 행위 때문이다. 한 개인이 일주일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신용카드 한 장인 5g이라는 충격적인 사실(넘버즈 87호)도 플라스틱을 무한정 만들어내고 쉽게 버리는 인간의 행위로 무분별한 행위로 벌어진 것이다.

여기에 중고 거래의 사회적 의미가 있다. 중고 거래를 통해서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생산을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중고 거래 물량을 생각해 보면 중고 거래가 환경 보호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큰 기여보다는 중고 거래 행위를 통해 절제된 생활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사회적 가치가 확산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 풍요로운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우리가 사는 지구를 병들게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 그점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절제는 매우 필요한 가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운 삶을 간구하는데서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절제된 생활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전하는데로 관심을 모아 가야 한다. 모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버리지 말고 교회로 가져오고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가져가는 재활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재활용실의 정식 명칭이 '환경절제실'이다. 그 교회는 재활용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의미, 즉 재활용의 가치를 정확히 인지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인상깊었다.

또 하나 중고 거래를 하는 10대와 20대의 중고 거래 동기를 보면, 이들은 원하는 물건을 싼값에 산다는 욕구 충족도 있지만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구입하는 '경험' 그 자체도 즐긴다. 젊은이들이 쓰는 말 가운데 '득템'이라고 있는데, '득템'은 원래 게임에서 아이템을 획득한다는 것을 지칭하는 게이머들의 용어인데 이게 일반화되어 희귀 물건, 갈망하던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의 기쁨과 짜릿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넓어졌다. 여기에서 우리는 젊은이들이 '경험'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중년층은 현상을 인식할 때 이성적으로 납득되어야 하지만 젊은이들은 이성보다는 경험을 앞세운다. 즉 '경험'이 자기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현상을 인식하는 정도가 다르다. 이런 점은 교회의 청년 사역에 참조할만하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올 여름 휴가 계획, '집콕 + 따로 휴가지에 갈 계획 없다' 55%
2. 청년, 공정에 집착 보이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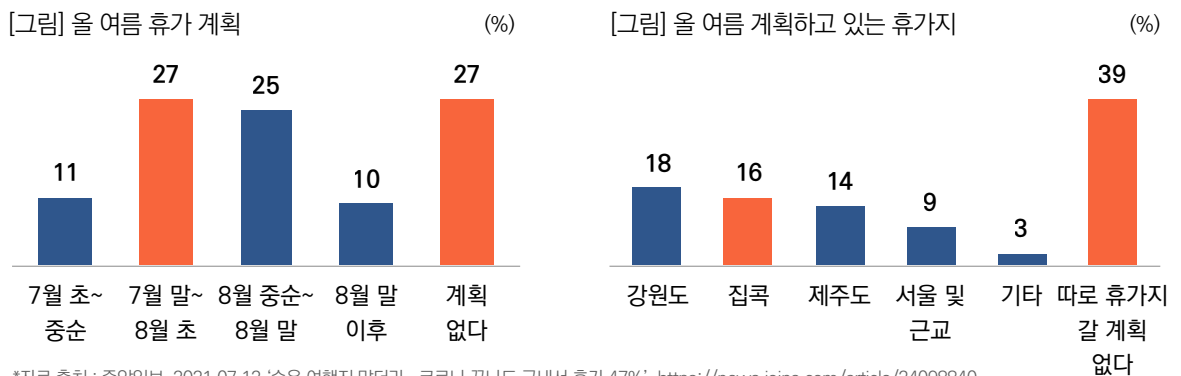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2021 여름 휴가 계획



올 여름 휴가 계획, '집콕 + 따로 휴가지에 갈 계획 없다'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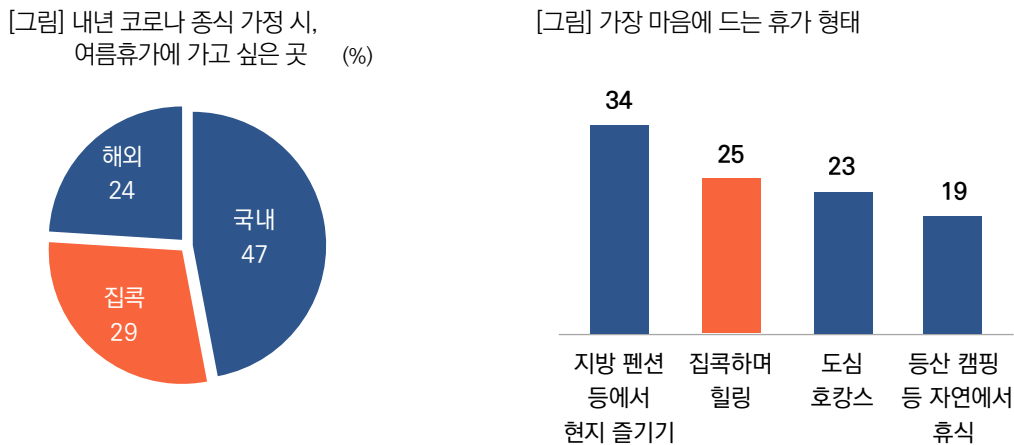
- 작년에 이어 올 해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 휴가를 맞아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올 여름 휴가 시기를 물어 본 결과, '7월 말~8월 초'가 2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8월 중순' 25%, '7월초~중순' 11% 등의 순이었다.
- 계획하는 휴가지를 묻는 질문에는 '강원도' 18%, '제주도' 14% 등으로 강원도가 가장 높았는데, '따로 휴가지에 갈 계획이 없다' 39%, '집콕' 16% 등 휴가 여행을 떠나지 않겠다는 응답이 무려 55%나 돼, 그만큼 코로나19가 국민 휴가/여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풀이된다.



*자료 출처: 중앙일보, 2021.07.12. '숨은 여행지 많더라...코로나 끝나도 국내서 휴가 47%', <https://news.joins.com/article/24098840> (조사개요: 전국 20~59세 남녀 2020명, 온라인조사)

● 코로나 종식을 가정할 때, 내년 여름휴가 장소, '집콕' 2위!

- 내년 이맘때 코로나가 끝났다고 가정한다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질문했는데, '국내'가 47%로 절반 가까이 응답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집콕' 29%, '무조건 해외' 24%로 응답했다. '집콕'이 두 번째로 높은 점이 주목할 만하다.
- 가장 마음에 드는 휴가 형태에서도 '집콕하며 힐링' 25%로 두 번째로 높아,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집콕이 익숙해진 결과 집에서 다양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자료 출처: 중앙일보, 2021.07.12. '숨은 여행지 많더라...코로나 끝나도 국내서 휴가 47%', <https://news.joins.com/article/24098840> (조사개요: 전국 20~59세 남녀 2020명, 온라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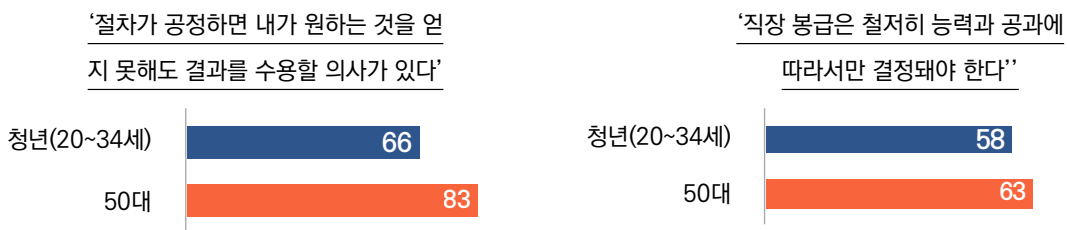
2. 2030의 세대 인식



청년, 공정에 집착 보이지 않아

- KBS가 우리 사회의 세대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청년층(20~34세)과 50대 장년층 대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공정 인식과 관련, '절차가 공정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결과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에 '청년층' 66%, '50대' 83%가 '동의한다'고 응답해, 청년보다 50대가 동의율이 더 높았다.
- 또 '직장 봉급은 철저히 능력과 공과에 따라서만 결정돼야 한다' 역시 '청년층' 58%, '50대' 63%로 50대가 더 높아, 두 의견에 대해 청년보다 오히려 50대가 공정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50대가 청년보다 공정에 더 민감하다는 이번 조사 결과는 청년층이 공정에만 집착한다는 주장이 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공정 의식(20-34 청년층 vs 5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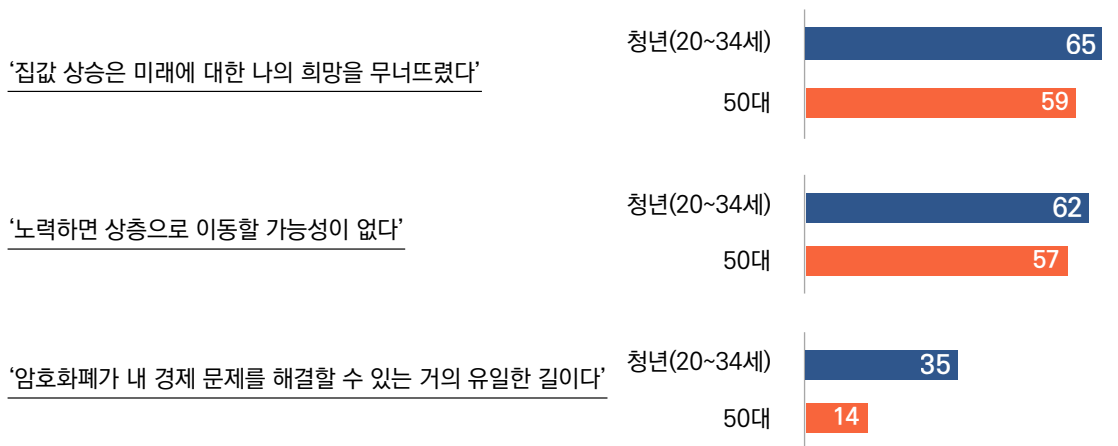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KBS, '시사기획 창, 세대인식 집중조사', '세대가 아니라 세상이 문제다', 2021.07.0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8373>
 (조사개요 : 전국 만20~34세, 50~59세 남녀 각각 600명 총 1200명, 한국리서치, 온라인조사, 2021.05.10.~13)
 **4점 척도로 긍정률(매우+어느정도) 수치임

● 청년층은 '공정세대'보다는 '상실세대'에 가까워!

- 청년층(20~34세)과 50대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청년층이 50대보다 비관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은 미래에 대한 나의 희망을 무너뜨렸다'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청년 65%, 50대 59%였고, '노력하면 상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 없다'는 응답이 청년 62%, 50대 57%로, 청년층이 자신의 미래 또는 계층 이동에 대해 상실감을 더 크게 느꼈다.

[그림] 미래 인식(20-34 청년층 vs 50대)



*자료 출처 : KBS, '시사기획 창, 세대인식 집중조사', '세대가 아니라 세상이 문제다', 2021.07.0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8373>
 (조사개요 : 전국 만20~34세, 50~59세 남녀 각각 600명 총 1200명, 한국리서치, 온라인조사, 2021.05.10.~13)
 **4점 척도로 긍정률(매우+어느정도) 수치임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 이준석 현상

[한국 갤러 데일리 오피니언 제456호\(2021년 7월 3주\) - 코로나19 정부 대응 평가 등](#)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37호 \(2021년 7월 2주\)- 차기 대선 지지도, 여성가족부 폐지 등](#)

[이준석 지지한 MZ세대가 차기 대통령 결정한다](#)

신동아_2021.06.28.

[심상철은 2030...대선 앞 '유권자 지형' 평평해졌다](#)

한려게_2021.06.16.

일반 사회 \ 문화

["1억 줘도 안 날겠다"...정부의 플랜B, 통할까?](#)

KBS_2021.07.10.

[20년간 10개 군에서 10만 명이 사라졌다](#)

경남도민일보_2021.07.13.

[은퇴앞둔 50대, 8%만 연금 노후 생활...OECD 노인빈곤율 1위](#)

매일경제_2021.07.13.

[갑질금지법 시행 2년에도..."사내 괴롭힘 경험" 33%](#)

노컷뉴스_2021.07.11.

["6조 핼코노미 온다"...반려동물 전세기 여행·전원주택도 등장](#)

매일경제_2021.07.12.

[법과 현실 사이 음지에 갇힌 '타투 시술'... "의료행위" vs "예술적 표현"](#)

한국일보_2021.07.11.

["여가부 폐지, 찬성 48% 반대 41%...2030에선 찬성 59%"](#)

연합뉴스_2021.07.15.

[20대 10명중 2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

동아일보_2021.07.16.

["퇴근 후 가볍게 한잔 어때?"...무심코 던진 한마디 암 사망 위험 높아진다 왜?](#)

매일경제_2021.07.14.

[에너지전환 4년,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한국일보_2021.07.15.

기
후
/
환
경

[‘압력솥 열돔’에 갇힌 북미…미국 데스밸리 54.4도, 1913년 이후 세계 최고 기온](#)

중앙일보_2021.07.12.

[온갖 기후재앙 한 달 사이 다 겪은 인류](#)

경향신문_2021.07.14.

[“텀블러 쓰고 플로깅”… 간간해진 친환경 소비](#)

동아일보_2021.07.14.

국
제

[코로나 실업자 1억명… 감당 못할 속도로 일자리가 사라졌다](#)

조선일보_2021.07.09.

[한국인, 도쿄올림픽 반대 1위…"올림픽? 관심도 없다" 70%](#)

JTBC_2021.07.14.

기획 기사 - 채식 관련(중앙일보)

[‘고기 먹는 채식주의자’ 200만 명 시대, 채식 인구 10여 년 새 17배 늘었다\(7월 10일\)](#)

[“몸 가벼워져” MZ세대 10명 중 3명 고기 먹는 간헐적 채식\(7월 10일\)](#)

[“건강해지고 살도 안 쪼 좋아요” 싹 비워 “맛없어 채식 찾으면 전학갈 것” 불만도\(7월 10일\)](#)

[“1800명이 주 1회 1년 채식 땀 소나무 7만 그루 심는 효과”\(7월 10일\)](#)

[뉴욕 모든 공립학교서 ‘고기 덜 먹기’ 교육…프랑스는 주 1회 채식 급식\(7월 10일\)](#)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이름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P,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정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정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불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 GoodTV(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중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고현권,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렬,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훈,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노석,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형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섭, 송으뜸,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우애라, 유성민,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여민, 이광호, 이달훈,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춘봉, 이현, 이현구, 이현식, 이호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우성, 장형철, 전응림, 전치영, 정부활, 정용철, 정종섭, 정준, 정준,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중배, 진범수, 차용헌, 최명영,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준, 최준혁, 최현갑, 한재웅,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혜숙, 황태기(가나다순)

신규 후원 | 총신교회(담임목사 이진호)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장 | jy0113@mhdata.or.kr
박태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